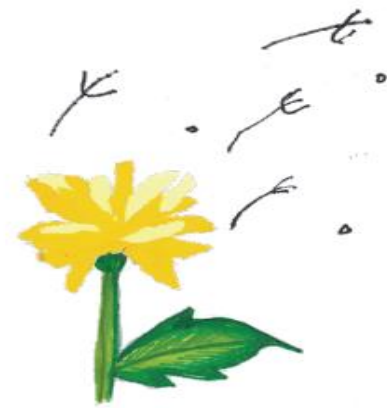


지지 않는 꽃

말하기*그리기 김설화 틈기*쓰기 이정연



bmc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마을백서 '메스르셀러'



민들레는 어디로 흩날릴지 모른다. 작은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낫선 땅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자리에 꽃을 피운다. 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그 질긴 생명력.

그러려 언설도 그랬다. 파스텔 햇살과 찬 바람을 더 멀리 뿔뿔게는 날다 들어달았다. 먼들까지 겨지 같은 것처럼 그러도 겨지 같았다.

01

김철환

하얀 겨울, 멈춰버린 시간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반짝거리는 눈발이 쏟아져 내리는 날, 그날은 봄날에서
 온다. 온다는 그날의 겨울이 온다.

“살아있는가?”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살아있는가?”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살아있는가?”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수줍게 웃고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